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개선이 중요해요!

산업재해 업무상 질병 승인 2건 중 1건이 근골격계질환이다.
 사업장의 특성을 가리지 않고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환으로,
 유해요인을 파악해 근골격계질환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보건관리자의 중요한 역할이다.
 작업 형태와 함께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방법을 살펴본다.

단위작업

하나로 통합된 작업을 세부 단위로 나눌 때 가장 작은 단위의 작업을 말한다. 둘 이상의 동작이나 자세가 서로 연결될 때 각각의 세부작업으로,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을 조사할 때 기초가 되는 항목이다. 유해요인조사자는 단위작업 목록을 작성해 각각의 단위작업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지 판단한다. 부담을 준다고 판단되는 단위작업은 근골격계질환 증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유해도를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한다.

동일작업

동일한 작업 설비를 사용하거나 작업을 수행하는 동작이나 자세 등 작업방법이 같다고 인정되는 작업을 말한다. 이를테면 동일 사양의 프레스를 여러 대 사용하여 동일한 제품을 만드는 경우, 각각의 프레스 작업은 동일작업에 해당된다. 동일작업에 근골격계부담이 된다고 판단되면 유해요인 기본조사표와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양식을 사용해 유해도를 평가한다. 유해요인 조사 결과 작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선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비)정형작업

정형작업은 작업 동작이나 자세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고정되어 있는 형태의 작업으로 특정 기계·기구 등 설비를 이용하는 작업을 말한다. 정형작업 중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은 근골격계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반면 비정형작업은 작업의 내용이나 방법이 작업 여건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형태로, 근골격계질환 유해도 평가는 노동자의 구체적인 작업상황을 고려해 판단한다. 🗣️

